

셰브론, 브라질에서 퇴출 위기

해저유전 기름유출 반복으로 ... 유전 개발활동 금지 가능성

브라질 해저유전에서 잇따라 기름유출 사고를 낸 미국 정유기업 셰브론(Chevron)의 브라질 활동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언론은 연방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셰브론에 대해 브라질 유전 개발활동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3월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검찰은 3월22일 셰브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셰브론은 2011년 11월 초 대서양 연안 캄포스만의 해저 1200m에 있는 프라지 광구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중 기름유출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원유 3000배럴이 유출됐으며, 브라질 연방 에너지부 산하 석유관리국(ANP)은 셰브론의 프라지 광구 개발 중단을 명령했다.

셰브론에 대해서는 ANP와 환경부 산하 환경·재생가능자원연구소(IBAMA), 캄포스만을 담당하는 리우 주 정부 등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됐다.

3월16일에는 역시 캄포스만 해저유전에서 기름유출 사실이 확인됐으며, 셰브론은 원유 생산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브라질 해군은 유출사고로 캄포스만 일대에 1km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캄포스만은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해안으로부터 370km 떨어져 있으며,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6만배럴 정도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0>